
이슈 분석 및 서베이

이슈 분석 및 서베이: 2024년 지역별 수출 변동 요인 및 2025년 수출 전망 서베이¹⁾

요약

2024년 1~11월 중 전국 통관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3% 늘어났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역별로 고르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회복됨에 따라 지역별 수출 산업 구조에 따른 차별화가 뚜렷하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수도·충청권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동남권도 선박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화공품, 철강 등 중국과의 경쟁이 심한 품목 비중이 큰 대경·호남권 수출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금년 4/4분기(10~11월) 중 우리 수출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인 43.6%에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지역별 수출 산업구조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별 수출 변동(1~8월 기준)을 ①점유율 요인(기업 요인), ②품목수요 요인(산업 요인), ③글로벌 교역요인으로 정량적으로 분해해 보았다. 분석 결과, 각 요인의 기여 양상이 지역별로 상이하였다. 수도권은 주력 수출품의 글로벌 수요도 증가하고 지역기업들의 경쟁력도 강화되었다. 동남권은 글로벌 수요 감소를 점유율 확대로 극복하였으며, 호남권은 선박을 중심으로 점유율이 제고되었으나 그 정도가 동남권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대경권은 글로벌 수요 감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의 경우 점유율 및 품목수요 요인의 기여도가 모두 플러스(+)였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두 요인 모두 마이너스(-)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역기업들이 바라보는 2025년 수출 전망 및 여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200개 수출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베이 결과, 기업들은 2025년 수출이 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증가폭은 금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았다. 대외환경은 다소 악화되겠지만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여타 지역에 비해 향후 수출 전망이 긍정적이어서 수도권 수출 비중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대외여건과 관련하여서는 기업들은 중국의 과잉생산 및 저가 수출에 따른 경쟁 심화를 가장 우려하였으며, 2025년에 그 영향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았다. 중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도 이차전지, 기계류, 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이미 국내업체와 비슷하거나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는 당초 예상보다는 덜하였는데, 업종, 기업별로 인식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업종의 경우 철강, 자동차 등에서 우려가 컸다. 하지만 중국과 경쟁이 심한 기업들은 차등 관세 부과에 따른 반사 수혜를 기대하였으며, 제품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도 부정적 여건 변화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향후 대외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구개발 등을 통해 중국과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긴요하다. 또한 글로벌 통상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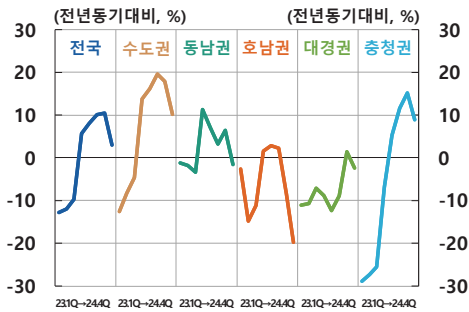
1) 본 분석은 한국은행의 공식건해가 아니며 집필자 개인의견임을 밝힙니다. 분석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자(정희완 과장 hwj@bok.or.kr, 유재성 조사업 yoo@bok.or.kr)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I. 검토 배경

2024년 1~11월 중 전국 통관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3% 늘어나며 전년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수출 회복세가 지역별로 고르게 나타나지는 않았다.²⁾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철강, 화공품 등은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지역별 수출 산업 구조에 따른 차별화가 뚜렷하였다(<참고 1> 참조).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수도권(+16.4%)과 충청권(+10.4%)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동남권(+4.2)도 선박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화공품, 철강 등 중국과의 경쟁이 심한 품목의 비중이 큰 대경권(-5.9%)과 호남권(-4.6%) 수출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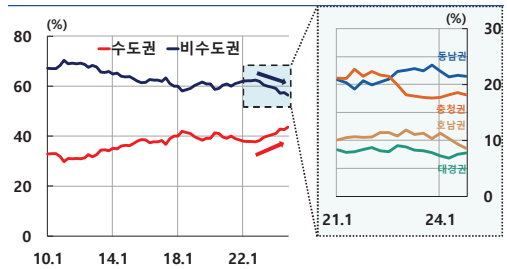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권역별 수출 증가율 추이¹⁾



주: 1) 2024.4분기는 10-11월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이에 따라 수도권 수출 비중은 더욱 확대되었다. 수도권 수출 비중은 2022년 4/4분기(37.6%) 이후 반등하기 시작하였는데, 2024년 4/4분기(10~11월)에는 43.6%로 높아져 직전 고점인 2018년 2/4분기(42.0%)를 상회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체감하는 수출 경기가 상당히 괴리될 우려가 있다.³⁾

그림 2. 수도권 및 비수도권 수출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게다가 향후 우리 수출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 무역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의 영향 역시 지역별 산업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지역별 산업구조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별 수출 동향을 살펴본 다음, 지역별 수출 변동을 점유율 요인, 품목수요 요인, 글로벌교역 요인으로 정량적으로 분해해 보았다. 아울러 전국 200개 제조업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지역 기업들의 2025년 수출 전망 및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2) 통관수출은 수출 신고서 상 제조업체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구분된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생산 공장이 아닌 본사 등 다른 지역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본고에서는 강원권 및 제주권 수출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이들 지역을 제외한 5대 권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 기업들이 2025년 및 향후 3년간 수출 증가 여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본고의 3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 1

권역별 수출 산업구조

우리나라 수출은 수도권 비중이 42%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동남권(22%), 충청권(18%), 호남권(10%), 대경권(7%) 순이다. 우리나라의 10대 주력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반도체⁴⁾, 기계장비, 전기장비 등 5개 품목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였다. 동남권은 선박과 석유제품 2개 품목의 수출이 전국에서 가장 크다. 충청권은 디스플레이, 호남권은 철강, 대경권은 휴대폰 및 부품이 전국에서 가장 크다.

표 1. 주력 수출 품목의 권역별 비중(2024.1~11월)¹⁾

| | 권역별 비중(%) | | | | | | | 전국 |
|----------|-----------|-----|-----|-----|-----|-----|-----|-----|
| | 수도권 | 동남권 | 호남권 | 대경권 | 충청권 | 강원권 | 제주권 | |
| 반도체 | 55 | 0 | 3 | 1 | 41 | 0 | 0 | 100 |
| 자동차 및 부품 | 45 | 40 | 9 | 3 | 3 | 0 | 0 | 100 |
| 화공품 | 42 | 16 | 18 | 7 | 16 | 1 | 0 | 100 |
| 기계장비 | 54 | 23 | 3 | 9 | 11 | 0 | 0 | 100 |
| 석유제품 | 6 | 48 | 29 | 0 | 17 | 0 | 0 | 100 |
| 전기장비 | 49 | 20 | 5 | 10 | 15 | 1 | 0 | 100 |
| 철강 | 27 | 19 | 29 | 22 | 4 | 0 | 0 | 100 |
| 선박 | 4 | 75 | 21 | 0 | 0 | 0 | 0 | 100 |
| 디스플레이 | 36 | 1 | 0 | 9 | 54 | 0 | 0 | 100 |
| 휴대폰 및 부품 | 33 | 0 | 0 | 65 | 1 | 0 | 0 | 100 |
| 기타 | 50 | 23 | 5 | 10 | 11 | 1 | 0 | 100 |
| 전체 품목 | 42 | 22 | 10 | 7 | 18 | 0 | 0 | 100 |

주: 1) 굵은 네모는 품목 내 수출 금액이 가장 큰 권역 빨간 음영은 권역 내 비중이 전국보다 높은 품목을 의미(특화계수>1)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권역별로 수출품목 비중을 살펴보면, 먼저 수도권은 반도체(28%)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서 자동차 및 부품(14%), 화공품(14%) 순이었다. 수도권의 화공품에는 석유화학제품(38%) 외에도 화장품(22%), 의약품(20%)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동남권은 국내 주요 완성차 공장과 조선소가 위치하여 자동차 및 부품(25%)과 선박(13%) 비중이 높았다.

호남권은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화공품(25%), 석유제품(22%)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화공품의 81%는 석유화학 제품으로 구성되어있다.

대경권의 경우 국내 유일 스마트폰 공장 소재지로 휴대폰 및 부품(20%)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서 화공품(14%)의 비중이 높은데, 화공품 중 절반 정도(55%)가 이차전지 소재⁵⁾이다.

충청권은 반도체 비중이 50%로 단일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다는 특징이 있다.

표 2. 각 권역의 주력 수출 품목별 비중(2024.1~11월)¹⁾

| 품목별 비중(%) | 권역별 비중(%) | | | | | | | 전국 |
|-----------|-----------|-----|-----|-----|-----|-----|-----|-----|
| | 수도권 | 동남권 | 호남권 | 대경권 | 충청권 | 강원권 | 제주권 | |
| 반도체 | 28 | 0 | 6 | 3 | 50 | 0 | 56 | 22 |
| 자동차 및 부품 | 14 | 25 | 12 | 6 | 2 | 8 | 1 | 14 |
| 화공품 | 14 | 11 | 25 | 14 | 12 | 21 | 4 | 14 |
| 기계장비 | 12 | 10 | 3 | 11 | 6 | 5 | 2 | 9 |
| 석유제품 | 1 | 17 | 22 | 0 | 7 | 0 | 0 | 7 |
| 전기장비 | 7 | 5 | 3 | 8 | 5 | 15 | 0 | 6 |
| 철강 | 3 | 4 | 14 | 15 | 1 | 2 | 0 | 5 |
| 선박 | 0 | 13 | 8 | 0 | 0 | 0 | 0 | 4 |
| 디스플레이 | 2 | 0 | 0 | 4 | 8 | 0 | 0 | 3 |
| 휴대폰 및 부품 | 2 | 0 | 0 | 20 | 0 | 0 | 0 | 2 |
| 기타 | 17 | 15 | 7 | 19 | 9 | 49 | 37 | 14 |
| 전체 수출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주: 1) 굵은 네모는 권역 내 수출 금액이 가장 큰 품목 빨간 음영은 권역 내 비중이 전국보다 높은 품목을 의미(특화계수>1)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4) 본고에서 반도체 수출은 MTI 831(반도체)과 8138(전산기록매체, SSD)을 포함한 기준을 사용하였다.
 5) MTI 2289(기타정밀화학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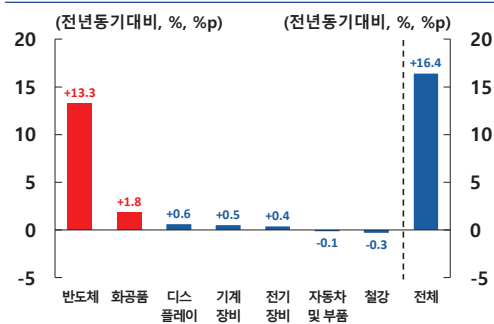
II. 2024년 수출 동향

1. 권역별 동향

가. 수도권

2024년 1~11월 중 수도권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16.4%)을 기록하였다. 수도권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67.3% 증가하면서 수도권 수출 증가에 81% 기여(기여도 +13.3%p)하였다. 화공품 수출도 12.8% 증가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견조하였는데, 화장품 및 의약품의 역할이 컸다.⁶⁾ 수도권은 이외에도 디스플레이(+27.3%), 전기장비(+5.1%), 기계장비(+3.6%) 등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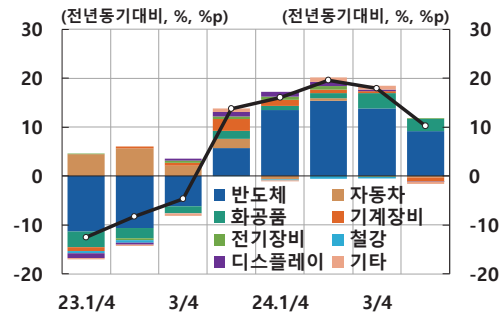
그림 3. 수도권 수출 증가율 및 주력 품목 기여도¹⁾



주: 1) 2024.1~11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분기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수출 증가율은 2/4분기(+17.9%)를 정점으로 점차 낮아져 4/4분기(이하 10~11월) 10.3%를 기록하였다. 이는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이 컸다.

그림 4. 수도권 분기 수출 추이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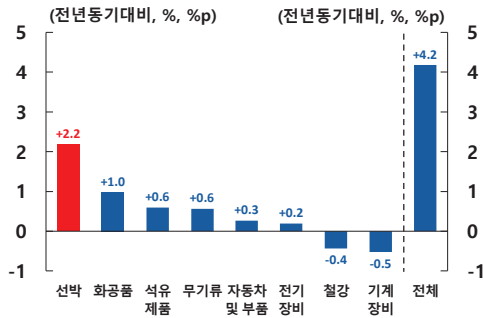
주: 1) 2024년 4/4분기는 10~11월 기준
 2) 자동차는 부품 포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나. 동남권

동남권 수출은 IT 산업 부재에도 4.4% 증가하였다.⁷⁾ 동남권 수출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품목은 선박으로, 고가 선박의 인도가 점차 늘어나면서 선박 수출이 19.9% 증가하였다. 화공품도 라텍스 등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9.7% 증가하였다.⁸⁾ 또한 방산 수출 호조로 무기류 수출이 222% 증가한 점도 특징적이다. 한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및 부품은 유럽지역 수요 둔화, 완성차 및 부품사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등으로 1.0% 증가에 그쳤다.

6) 수도권 화공품 수출에서 화장품(MPI 2273) 및 의약품(MPI 2262)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7% 및 19.7%로, 전국(각각 10.7% 및 10.2%)의 두 배 수준이다.
 7) 권역별 비IT 품목 수출 증가율(2024.1~11월, 전년동기대비): 전국 +0.9%, 동남권 +4.4%, 수도권 +3.4%, 호남권 -2.2%, 충청권 -4.5%, 대경권 -11.6%
 8) 다만 일부 동남권 업체가 2024년 1월부터 수출 신고지를 변경(서울 본사 → 울산 공장)하면서 과대 계상된 측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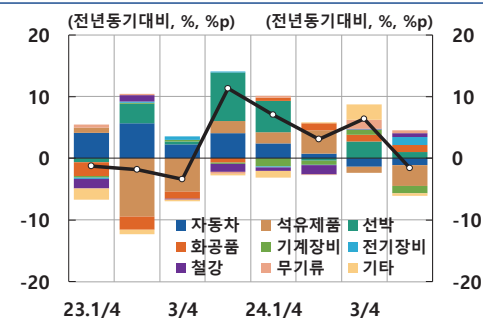
그림 5. 동남권 수출 증가율 및 주력 품목 기여도¹²⁾



주: 1) 2024.1-11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분기별로 살펴보면 동남권 수출은 2023년 4/4분기(+11.3%)를 정점으로 증가율이 낮아지다가 금년 4/4분기에는 소폭 감소로 전환하였다. 이는 자동차 수출이 생산 차질의 영향을 받은 데다, 석유제품 수출이 국제유가 하락⁹⁾으로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 반면 전기장비 수출은 글로벌 전력 인프라 확충 등으로 전력용기기¹⁰⁾(변압기) 수요가 확대되면서 4/4분기 30.1% 증가하였다.

그림 6 동남권 분기 수출 추이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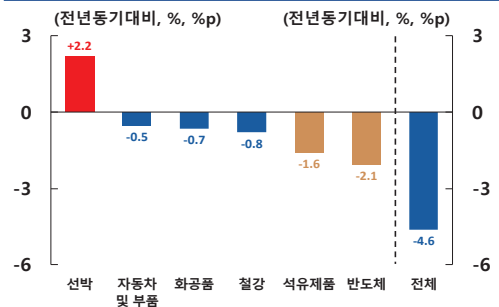


주: 1) 2024년 4/4분기는 10-11월 기준
 2) 자동차는 부품 포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다. 호남권

호남권 수출은 선박을 제외한 주력 품목들의 수출이 모두 줄어들어 4.6% 감소하였다. 선박 수출은 동남권(+19.9%)보다 높은 증가율(+43.2%)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은 주력 생산품인 스마트폰용 시스템반도체 부진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25.6% 감소하였다. 또한 석유제품(-7.2%), 철강(-5.5%), 화학품(-2.7%) 수출도 부진하였다.

그림 7. 호남권 수출 증가율 및 주력 품목 기여도¹²⁾



주: 1) 2024.1-11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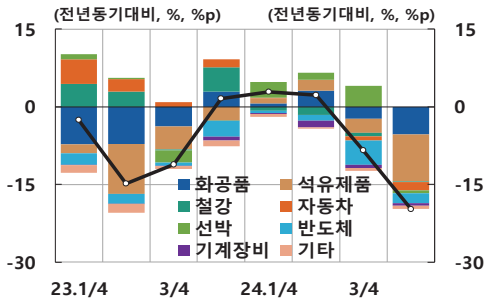
분기별로 살펴보면 호남권 수출은 하반기 들어 화학품¹¹⁾(상반기 +7.1% → 하반기 -15.1%), 석유제품(+8.0% → -21.7%), 자동차 및 부품(+0.1% → -10.4%)이 모두 감소세로 돌아서고, 반도체 부진이 심화(-10.6% → -40.1%)되면서 큰 폭 감소로 전환하였다.

9) 국제유가 상승률(두바이유, 전년동기대비 기준): 2024.상반기 +5.8% → 3/4분기 -9.4% → 10월 -17.6% → 11월 -12.8%

10) 동남권 전력용기기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2024.1/4분기 +32.4% → 2/4 +22.5% → 3/4 +33.9% → 10~11월 +70.7%

11) 다만 호남권 화학품 수출은 일부 업체가 7월부터 수출 신고지를 변경(여수 공장 → 서울 본사)하면서 과소 계상된 측면이 있다.

그림 8. 호남권 분기 수출 추이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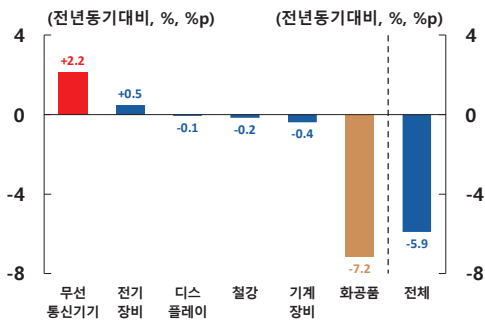


주: 1) 2024년 4/4분기는 10-11월 기준
 2) 자동차는 부품 포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라. 대경권

대경권은 5대 권역 중 가장 부진(-5.9%)하였다. 화공품 수출이 양극재(-48.6%) 수출 부진으로 34.9%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 컸다.¹²⁾ 철강(-1.1%)도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 국내 건설업 부진 등으로 2023년(-31.1%)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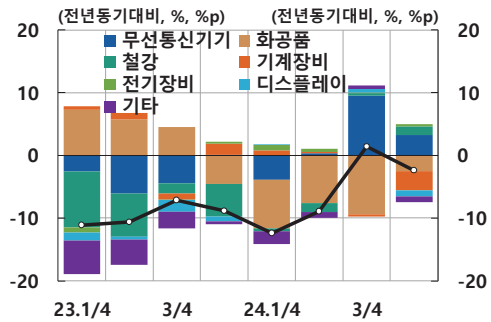
그림 9. 대경권 수출 증가율 및 주력 품목 기여도¹²⁾



주: 1) 2024.1-11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분기별로 살펴보면 대경권 수출은 3/4분기 증가 전환(+1.4%)하는 등 하반기 들어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상반기 중 아이폰 판매 부진 등으로 감소하였다가 하반기 고성능 부품 탑재 스마트폰 출시에 힘입어 큰 폭 증가하였다.

그림 10. 대경권 분기 수출 추이¹²⁾



주: 1) 2024년 4/4분기는 10-11월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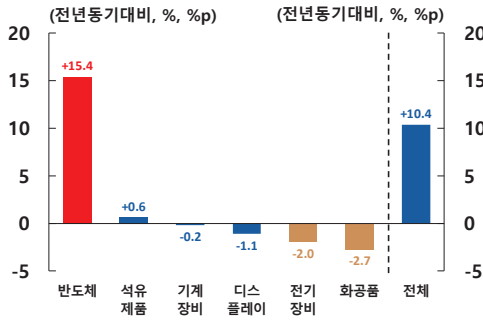
마. 충청권

충청권 수출은 수도권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10.4%)을 기록하였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38.8%) 수출이 수도권(+67.3%)보다는 낮긴 하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참고 2> 참조).¹³⁾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장비(-27.2%)와 화공품(-16.7%) 수출은 이차전지 업황 부진으로 큰 폭 감소하였다. 전기장비 수출 감소에는 태양광 모듈(-94.0%)이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으로 급감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디스플레이(-10.7%) 수출의 경우에도 OLED 탑재 신제품 판매 부진 등으로 감소하였다.

12) 대경권 화공품 수출에서 이차전지 소재가 포함된 기타정밀화학원료(MTI 2289)가 차지하는 비중은 55.3%로 전국(11.7%)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기타정밀화학원료 수출의 대부분(91.2%)은 양극재(HS 2841.90 기준) 수출이다.

13) 그러나 수도권과 달리 충청권 반도체 수출은 2022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이는 HBM을 포함한 디램 비중 차이, 시스템 반도체 부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수도권 및 충청권 간 반도체 수출구조 차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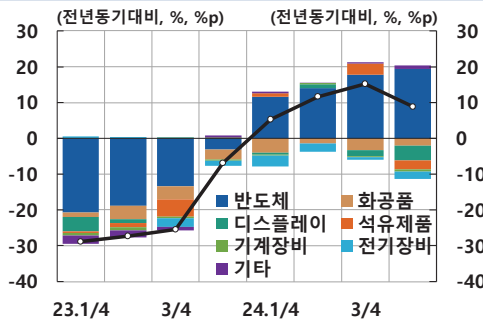
그림 11. 충청권 수출 증가율 및 주력 품목 기여도¹⁾²⁾



주: 1) 2024.1~11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분기별로 살펴보면 충청권 수출은 반도체 및 이의 품목 간 차별화가 심화되는 모습이 뚜렷하다. 반도체의 경우 수도권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하반기 이후 둔화된 것과 달리, 충청권 반도체 수출은 HBM 생산 확대 등으로 매 분기 증가폭이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4분기 충청권 수출 증가율이 하락한 것은 디스플레이(4/4분기 -32.1%), 석유제품(-29.4%) 등 반도체 제외 수출이 큰 폭 감소(-17.0%)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12. 충청권 분기 수출 추이¹⁾²⁾



주: 1) 2024년 4/4분기는 10~11월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참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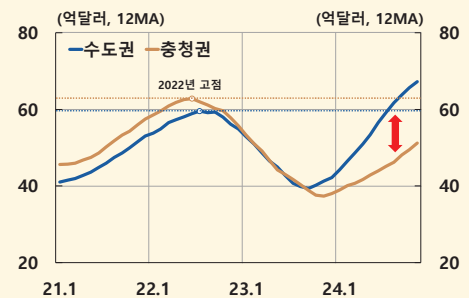
수도권 및 충청권 간 반도체 수출구조 차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삼성전자(경기 평택, 화성, 용인, 충남 아산 등)와 SK하이닉스(경기 이천, 충북 청주 등) 공장이 위치한 수도권과 충청권이 각각 55% 및 41%의 비중으로 양분하고 있다.

업체별 공장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경기도 공장에서 디램(DRAM)과 낸드(NAND)를 모두 생산하고 있으나, 패키징 공장이 위치한 충청권에서도 HBM 등 메모리 MCP(Multi Chip Package), 디램 모듈 등의 수출이 발생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이천에서는 주로 디램을, 청주에서는 낸드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HBM 생산에 필요한 첨단 패키징(TSV) 라인을 청주 공장(M15)에 도입하였으며, 내년 중 완공될 예정인 M15X에서도 HBM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 상반기에 수도권과 충청권의 반도체 수출 격차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제품별 업황 차이에 주로 기인한다.

그림 13. 수도권 및 충청권 반도체 수출 추이¹⁾



주: 1) 12개월 이동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우선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디램을 적층하여 생산하는 HBM을 중심으로 늘어남에 따라 디램 생산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메모리반도체 수출 증가율(+96.0%)이 충청권(+65.9%)을 큰 폭 상회하였다. 게다가 충청권은 모바일 AP(Application Processor) 등 시스템반도체 수출도 부진하였다. 그 결과 2022년에는 충청권 반도체 수출 금액이 수도권보다 더 컸지만, 2023년 하반기 이후 역전되었다.

한편 금년 하반기에는 두 권역 간 격차가 축소되는 모습이다. 충청권의 시스템반도체 부진이 완화된 데다 청주의 첨단 패키징 라인 증설 등으로 HBM 등 메모리 MCP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표 3. 2024년 중 수도권 및 충청권 반도체 수출 증가율¹⁾

| 권역 | 반도체 종류 ²⁾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수도권 | 메모리반도체 [48.1%] | +121.0 | +76.1 | +96.0 |
| | 메모리 MCP ³⁾ [12.2%] | +93.4 | +77.7 | +84.8 |
| | 시스템반도체 [47.6%] | +54.8 | +28.2 | +40.6 |
| | 전체 ⁴⁾ | +84.7 | +52.7 | +67.3 |
| 충청권 | 메모리반도체 [70.8%] | +62.4 | +69.7 | +65.9 |
| | 메모리 MCP ³⁾ [29.7%] | +89.3 | +96.7 | +93.1 |
| | 시스템반도체 [27.9%] | -32.0 | -16.2 | -25.3 |
| | 전체 ⁴⁾ | +32.6 | +45.9 | +38.8 |

주: 1) 2024.1-11월, 전년동기대비 기준
 2) [] 안은 2023년 기준 권역 반도체 수출 내 비중
 3) HBM, 고용량 메모리반도체 포함
 4) 다이오드 등 기타 반도체 포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 지역별 수출 증감 요인분해: 불변 시장점유율(CMS) 분석

본고는 권역별 수출 증감 요인을 불변시장점유율(CMS, Constant Market Share) 분석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CMS 모형에 따르면 수출 증가율은 ①우리 수출품의 전 세계 수입시장 내 점유율 변동(점유율 요인), ②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글로벌 수입수요 변동(품목 수요 요인), ③글로벌 상품 교역량 변동(글로벌 교역 요인)으로 분해된다(<참고 3> 참조). 점유율 요인과 품목수요 요인은 각각 해당 산업 내 경쟁력 변화, 산업의 성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업 요인과 산업 요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전국 수출 증가(2024.1~8월)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따른 점유율 상승에 주로 기인하였으며, 글로벌 수요 증가는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점유율 요인은 수출 증가의 83%(+9.3%p)에, 품목수요 요인은 나머지 17%(+1.9%p)에 기여하였다. 한편 글로벌교역 요인의 영향은 미미하였다.

표 4. 전국 수출 증가율 품목별·요인별 기여도 분해¹⁰⁾

| 품목 | (단위: %p) | |
|----------|----------|---------|
| | 점유율 요인 | 품목수요 요인 |
| 반도체 | +5.5 | +3.6 |
| 선박 | +1.2 | -0.4 |
| 석유제품 | +0.7 | -0.0 |
| 자동차 및 부품 | +0.5 | +0.1 |
| 기계장비 | +0.6 | -0.1 |
| 기타 | +0.1 | +0.2 |
| 휴대폰 및 부품 | +0.2 | +0.2 |
| 디스플레이 | -0.1 | +0.3 |
| 철강 | +0.1 | -0.4 |
| 전기장비 | -0.4 | -0.1 |
| 항공품 | +0.7 | -1.4 |
| 합계 | +9.3 | +1.9 |

주: 1) 2024.1-8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기준
 2) 글로벌 교역요인은 기여도가 0으로 나타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각국 관세청, Census Bureau, Eurostat, UN Comtrade, 자제시산

14) 분석대상 기간은 주요 수출 대상국(43개 국가)의 품목별 수입 데이터가 확보 가능한 1~8월이다.

참고 3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 방법

각 권역의 수출 증감은 품목별(j)¹⁵⁾ 수출(E_j) 증감의 합과 같다(식 1-(1)). 이를 글로벌 수입시장 관점에서 살펴보면 ① 해당 품목에 대한 글로벌 총수입(I_j)은 일정할 때 우리 수출의 글로벌 점유율(ms_j , market share)이 변화한 데 따른 부분과, ② 우리의 점유율은 일정할 때 해당 품목에 대한 글로벌 총수입이 변화하여 발생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식 1-(2)). 또한 해당 품목의 글로벌 총수입 변화(②)는 다시 전체 글로벌 총수입(세계교역) 변화와, 글로벌 총수입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ps_j , product share) 변화로 분해할 수 있다(식 1-(3)).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점유율 요인**: 우리 수출 품목의 전세계 수입시장 내 점유율 변동을 측정하며, 수출경쟁력 변화를 가능할 수 있다.
- ② **품목수요 요인**: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글로벌 수입 수요의 상대적인 강도를 측정한다.
- ③ **글로벌교역 요인**: 전 세계 총수입 규모 변화에 따른 수출 변동을 측정한다.

한편 전 세계 국가들의 품목별로 세분화된 수입 데이터는 시차를 두고 발표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 중국, EU, 일본, 대만 등 글로벌 교역과 우리 수출에서 비중이 큰 43개 국가에 대한 수입 데이터를 글로벌 총수입으로 간주하였다. 모든 국가에 대한 수출입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권역별 수출과 글로벌 수입 증가율이 전 세계 대상 통계와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식 1. CMS 분해식¹⁾

$$\sum_j (E_{j,t_1} - E_{j,t_0}) \quad \dots (1)$$

$$= \sum_j I_{j,t_1} (ms_{j,t_1} - ms_{j,t_0}) + \sum_j ms_{j,t_0} (I_{j,t_1} - I_{j,t_0}) \quad \dots (2)$$

$$= \underbrace{\sum_j I_{j,t_1} (ms_{j,t_1} - ms_{j,t_0})}_{\text{① 점유율 요인}} + \underbrace{\sum_j ms_{j,t_0} I_{j,t_1} (ps_{j,t_1} - ps_{j,t_0})}_{\text{② 품목수요 요인}} + \underbrace{\sum_j ms_{j,t_0} ps_{j,t_0} (I_{t_1} - I_{t_0})}_{\text{③ 글로벌 교역요인}} \quad \dots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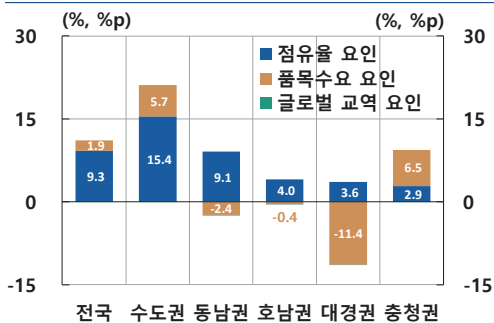
주: 1) $t_1(t_0)$ 은 2024년(2023년) 1-8월, $E_{j,t}$ 는 각 권역의 j 품목 t 기 수출, $I_{j,t}$ 는 j 품목 t 기 글로벌 수입(I_t 는 t 기 모든 품목에 대한 글로벌 총수입), $ms_{j,t}$ 는 각 권역의 j 품목 t 기 글로벌 수입시장 점유율(market share), $ps_{j,t}$ 는 t 기 글로벌 총수입에서 j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product share)

15) 본고에서는 HS 코드 6자리 수준에서 품목을 구분하여 CMS 분석을 실시한 뒤, 10개 주력 수출 품목별로 합산하였다.

품목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점유율 요인, 품목 수요 요인에서 반도체의 영향이 매우 컸다. 반도체 교역이 HBM 등 고성능 메모리를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전 세계 반도체 교역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점유율 확대도 뚜렷하였다.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수출품목에 대한 글로벌 수요(품목수요 요인)는 감소하였다. 특히 화공품과 철강의 수요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점유율 요인의 기여도는 대부분 품목에서 플러스(+)였다.

권역별로 보면, 지역에 따라 점유율 요인과 품목수요 요인의 기여 양상이 상이하였다. 수도권은 전국과 마찬가지로 두 요인의 기여도가 모두 플러스였다. 동남권은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글로벌 수입수요 감소를 점유율 확대로 극복한 반면, 호남권은 점유율이 제고되었으나 그 정도가 동남권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대경권은 글로벌 수요 감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의 경우 주력 수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가장 크게 늘었으나, 점유율 상승폭은 가장 작았다.

그림 14. 권역별 수출 증가율 요인별 기여도 분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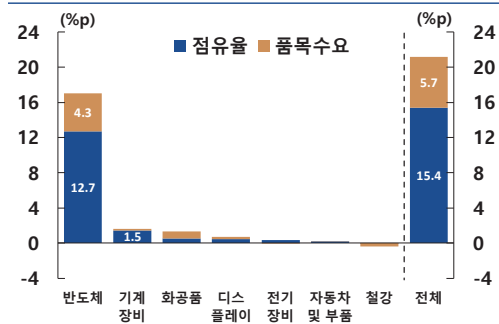
주: 1) 2024.1-8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각국 관세청, Census Bureau, Eurostat, UN Comtrade, 자체시산

16) 권역별 분석 결과에서 동일한 품목(ex. 반도체)이라 하더라도 권역별로 생산하는 세부 품목(ex. 메모리반도체)은 다르기 때문에 품목수요 요인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7) 선박은 탱커선의 전 세계 선박 인도가 줄어들었고, 기계장비는 건설중장비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였다.

권역별 세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¹⁶⁾ 먼저 수도권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점유율 및 품목수요 요인의 기여도가 모두 플러스였다. 전국과 차이는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에서도 글로벌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점유율 요인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반도체는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등 모두 점유율이 상승하였다. 또한 기계류도 반도체 장비 수출 등에서 점유율이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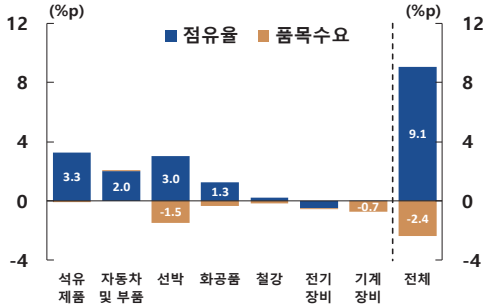
그림 15. 수도권 수출 증가율 품목별·요인별 기여도 분해¹⁾



주: 1) 2024.1-8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각국 관세청, Census Bureau, Eurostat, UN Comtrade, 자체시산

동남권은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줄어들었으나,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석유제품, 자동차 및 부품, 선박, 화공품 등 대부분 품목에서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글로벌 수요는 선박과 기계장비를 중심으로 줄어들었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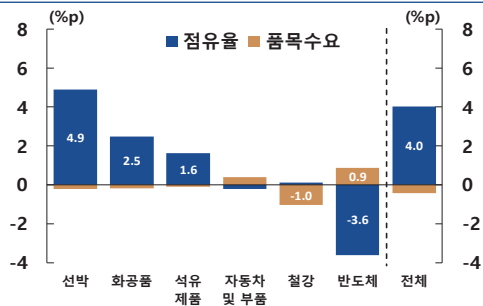
그림 16. 동남권 수출 증가를 품목별·요인별 기여도 분해¹⁾



주: 1) 2024.1-8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각국 관세청, Census Bureau, Eurostat, UN Comtrade, 자체시산

호남권은 선박을 중심으로 점유율이 확대되었으나 그 정도가 동남권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반도체 점유율이 큰 폭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한다. 화공품 점유율이 상승하긴 하였으나 지난해 상반기 석유화학 업체들이 업황 부진으로 대규모 정기보수를 실시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판단된다. 또한 호남권 수출은 분석대상 기간 이후 화공품¹⁸⁾,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크게 부진(9~11월 -18.2%)했는데, 이를 반영하면 점유율 제고 정도는 줄고 수요 감소폭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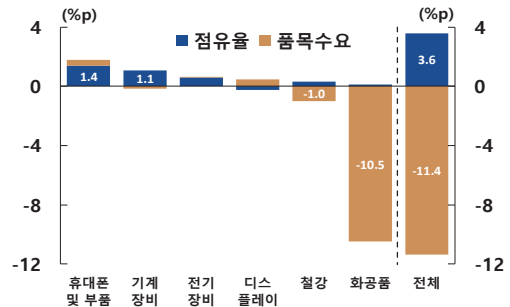
그림 17. 호남권 수출 증가를 품목별·요인별 기여도 분해¹⁾



주: 1) 2024.1-8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각국 관세청, Census Bureau, Eurostat, UN Comtrade, 자체시산

대경권은 화공품(양극재), 철강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전국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점유율 요인은 휴대폰 및 부품, 기계장비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림 18. 대경권 수출 증가를 품목별·요인별 기여도 분해¹⁾



주: 1) 2024.1-8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각국 관세청, Census Bureau, Eurostat, UN Comtrade, 자체시산

충청권은 점유율 및 품목수요 요인의 기여도가 모두 플러스(+)였지만, 수출 증가가 주로 글로벌 수요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반도체는 수도권(74.5%)에 비해 점유율 요인의 기여율(35.0%)이 상당폭 낮은 모습이다. 이는 충청권에서 수출하는 메모리반도체의 점유율 확대폭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시스템반도체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이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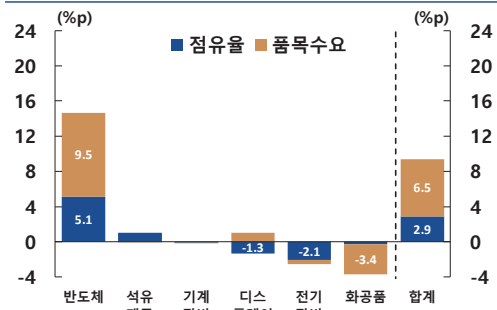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충청권 수출은 글로벌 수요도 감소하고 점유율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디스플레이는 글로벌 및 국내 타권역 업체와의 OLED 경쟁 심화로 점유율이 하락하였다. 이차전지와 관련된 화공품과 전기장비의 경우 두 요인이 모두 마이너스(-)로 작

18) 12월 중 호남권 석유화학 업체가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는 등 석유화학 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권역 | 메모리반도체 | | 시스템반도체 | | 전체 | |
|---------|--------|---------|--------|---------|--------|---------|
| | 점유율 요인 | 품목수요 요인 | 점유율 요인 | 품목수요 요인 | 점유율 요인 | 품목수요 요인 |
| 19) 수도권 | +39%p | +18%p | +20%p | +3%p | +60%p | +20%p |
| 충청권 | +25%p | +23%p | -13%p | +1%p | +13%p | +24%p |

용하였는데, 화공품은 양극재 글로벌 수요 감소에, 전기장비는 배터리 점유율 하락에 주로 기인하였다.²⁰⁾ 한편 전기장비 중 태양광 모듈 수출 감소도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인한 점유율 하락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충청권 수출 증가율 품목별·요인별 기여도 분해¹⁾



주: 1) 2024.1~8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각국 관세청, Census Bureau, Eurostat, UN Comtrade, 자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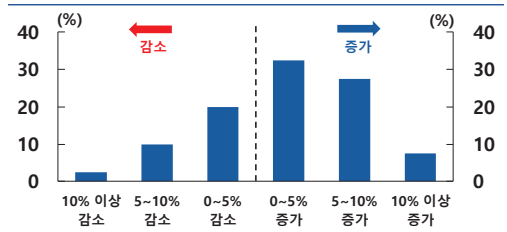
Ⅲ. 2025년 수출 전망 및 여건 인식

우리 수출 전망에는 중국과의 경쟁 심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 등 무역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향후 지역별 수출은 산업구조의 차이 등으로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지역기업들이 바라보는 2025년 수출 전망 및 여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2024년 11.9~30일 중 20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²¹⁾

1. 2025년 수출 전망

먼저 기업들은 2025년 수출이 금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²²⁾ 수출금액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²³⁾ 구간별 응답 비중을 살펴보면, 증가한다고 답변한 업체가 67.5%로 감소 응답 업체(32.5%)보다 많았다. 증가 응답 기업 중에서는 0~5% 수준의 소폭 증가를 전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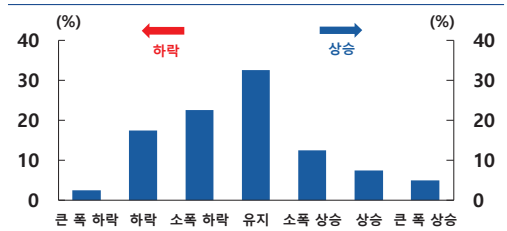
그림 20. 2025년 수출 증가율 전망¹⁾



주: 1) 각 구간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91%를 차지하는 상위 20% 기업 기준
 자료: 자체조사

2025년 수출 증가율을 2024년과 비교해 보면, 수출이 소폭 증가하더라도 금년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았다.

그림 21. 2025년 수출 증가율 금년 대비 변화폭 전망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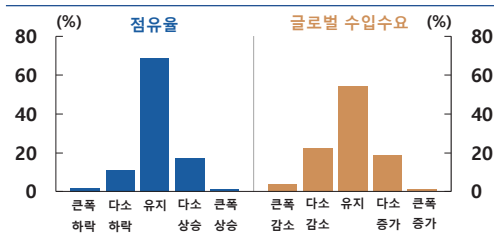


주: 1) 각 구간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91%를 차지하는 상위 20% 기업 기준
 자료: 자체조사

20) CMS 분석에서 충청권 배터리(셀) 수출 감소(-39.1%)는 점유율 하락에 72%(-27.9%p), 품목수요 감소에 28%(-11.1%p) 기인하였다. 반면 충청권 양극재 수출 감소(-68.6%)는 점유율 하락에 20%(-13.7%p), 품목수요 감소에 80%(-54.9%p) 기인하였다.
 21) 동 설문조사는 기업들의 전반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엄격한 표본추출에 따라 진행된 통계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22) 평균 수출 증가율(수출금액 가중평균 기준)은 응답구간별 중간값(예를 들어 0~5% 응답은 2.5%)으로 계산해보면 1.9%였다.
 23) 정량적 지표인 수출 증가율은 상위 20%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 수출금액의 91%를 차지한다. 한편 수출 여건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200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기업들은 대외환경이 다소 악화되겠지만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글로벌 수입수요와 점유율을 나누어 조사한 결과, 글로벌 수입수요는 감소 응답이 증가 응답보다 많고, 점유율은 상승 응답이 하락 응답보다 많았다.

그림 22. 2025년 수출 증감 요인



자료: 자체조사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동남권, 호남권, 대경권, 충청권 기업들 순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CMS 분석에서 점유율 요인 기여도 순서(<그림 14>)와 부합하였다.

표 5. 권역별 2025년 수출 증감을 전망

| | (%) | | | | |
|------------------|-----|-----|-----|-----|-----|
| | 수도권 | 동남권 | 호남권 | 대경권 | 충청권 |
| 10% 이상 감소 | 3 | 4 | 4 | 4 | 2 |
| 5~10% 감소 | 3 | 8 | 4 | 11 | 14 |
| 0~5% 감소 | 14 | 15 | 17 | 15 | 29 |
| 0~5% 증가 | 42 | 44 | 52 | 32 | 26 |
| 5~10% 증가 | 19 | 25 | 13 | 15 | 12 |
| 10% 이상 증가 | 19 | 4 | 4 | 4 | 17 |
| 증가 합계 (5% 이상 증가) | 81 | 73 | 75 | 70 | 55 |
| 감소 합계 (5% 이상 감소) | 39 | 29 | 17 | 19 | 29 |
| 합계 | 19 | 27 | 25 | 30 | 45 |
| 합계 | 6 | 13 | 8 | 15 | 17 |

자료: 자체조사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81% 기업이 증가를 전망한 가운데, 5%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 비율도 39%에 이르렀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동남·호남·대경은 증가로 응답한 비율이 대체로 70% 대로 비슷하였으나, 동남권의 경우 5% 이상 증가를 예상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충청권 기업들은 증가 응답비율이 55%에 불과하여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내년에도 수도권 수출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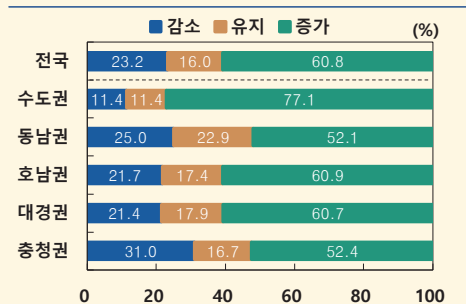
참고 4

지역기업의 중기(3년) 수출 전망

시계를 돌려 향후 3년간의 수출 흐름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화가 나타났다.

수도권은 중기적 시계에서도 현재 수준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아(77.1%) 다른 권역들에 비해 긍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호남권과 대경권은 증가할 것으로 보는 기업의 비중이 60% 정도(각각 60.9%, 60.7%)였고, 동남권과 충청권은 증가할 것으로 보는 기업의 비중이 절반(각각 52.1%, 52.4%) 정도에 그쳤다. 특히 충청권은 감소를 전망하는 기업 비중이 31.0%로 가장 높았다.

그림 23. 향후 3년 간 수출 추이 전망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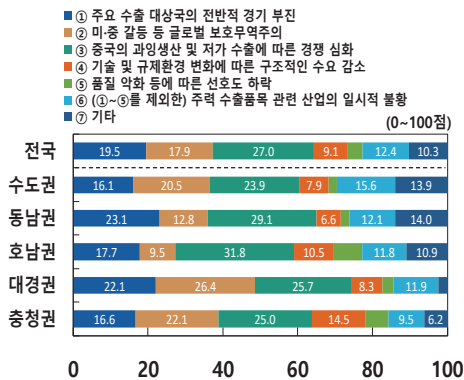
자료: 자체조사

2. 수출 여건 평가

다음으로 2025년 수출 전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여건을 조사하였다. 기업들이 부정적 여건별 영향을 상대 평가²⁴⁾(합계 100점)한 결과, 중국의 과잉생산 및 저가 수출에 따른 경쟁 심화를 가장 우려(평균 27.0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19.5점), 미·중 갈등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17.9점)의 순이었다.²⁵⁾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 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 심화(31.8점)를 특히 우려하였는데, 이는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이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데에 주로 기인한다. 대경권의 경우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크게 우려하였는데, 글로벌 밸류체인의 분절화, 고율 관세 등으로 이차전지, 철강 등의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 2025년 수출에 부정적인 여건 평가¹⁾



주: 1) 주어진 요인들이 내년 수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상대평가
 자료: 자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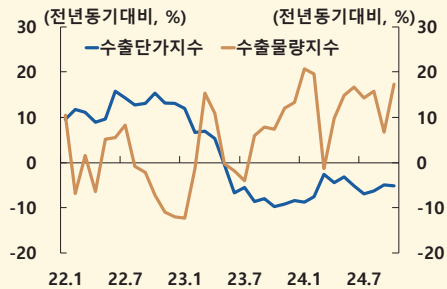
24) 기업들은 2025년 수출 전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평가하였으며, 총점 100점이 되도록 영향력이 큰 항목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였다.
 25) 그 외에는 '주력 수출품목 관련 산업의 일시적 불황'(12.4점), '기술 및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수요 감소'(9.1점)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참고 5

중국의 과잉생산 및 저가 수출 현황

최근 중국은 과잉 설비, 국내 소비 위축에 따른 과잉 생산물량을 수출 확대를 통해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수출 물량은 202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증가율이 10%를 웃돌고 있다. 반면 수출단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철강 등 전통 제조업에서 반도체, 전기차 등 여타 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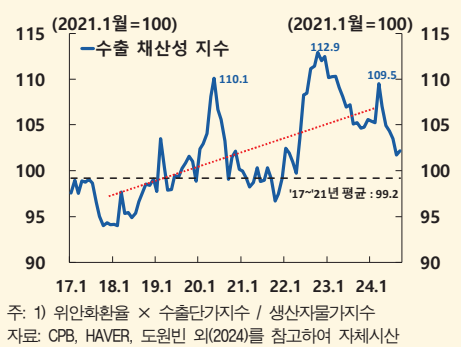
그림 25. 중국 수출단가지수 및 수출물량지수 상승률



자료: HA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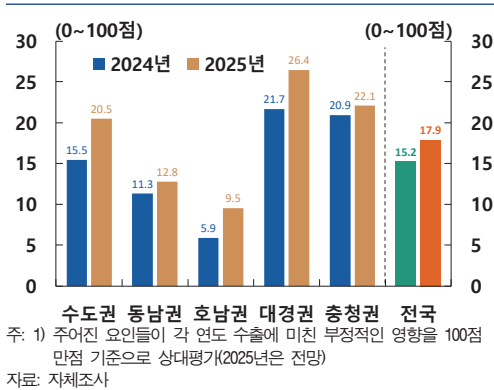
중국의 저가 수출은 여전히 높은 채산성을 바탕으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수출 채산성은 수출단가 하락에 따라 최근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낮은 생산자물가와 위안화 약세의 영향으로 여전히 예년(2017~2021년 평균 : 99.2)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6. 중국 수출 채산성 지수¹⁾



2024년과 2025년에 대한 응답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는 수도권과 대경권 기업들을 중심으로 미·중 갈등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7. 미·중 갈등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평가¹⁾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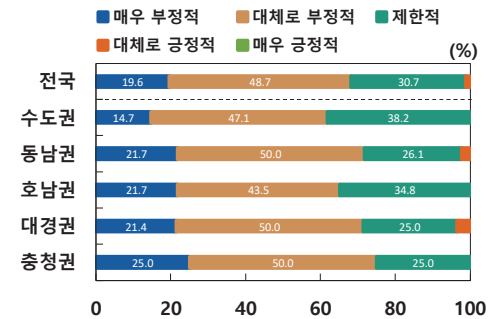
3. 주요 이슈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우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여건으로 평가한 중국과의 경쟁 심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가. 중국과의 경쟁 심화

우선 기업들은 중국의 과잉생산 및 저가 수출 행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매우 컸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이 70% 정도,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응답이 30% 정도로 조사되었다. 값싼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하는 경우와 같이 저가 수출의 긍정적 영향도 상정할 수 있지만 실제 그러한 응답은 미미하였다.²⁶⁾ 권역별 응답을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였다.

그림 28. 중국의 과잉생산 및 저가 수출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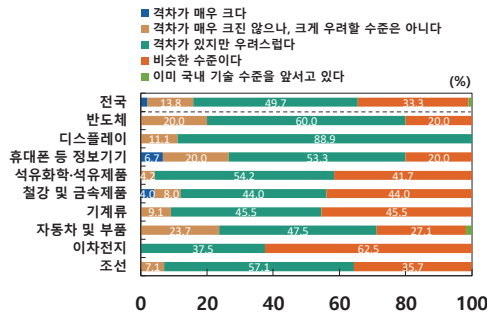


26) 중국의 과잉생산 및 저가 수출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대부분 중국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지 않거나(57.6%) 기술력 격차가 크기 때문(18.6%)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어 '주요국이 중국산 수입을 제한하면서 반사수혜가 있다'(10.2%), '중국산 값싼 중간재 투입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향상되었다'(6.8%), '중국 기업의 생산 증가로 대중국 수출이 늘어났다'(3.4%), '기타'(3.4%)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중국과의 경쟁은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 측면에서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이미 국내업체와 비슷하거나(33.3%), 우려스러운 수준(49.7%)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격차가 매우 크거나,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응답은 15.9%에 불과하였다.

업종별로는 중국 업체의 기술력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이차전지(62.5%), 기계류(45.5%), 철강 및 금속제품(44.0%) 순으로 가장 많았다. 반도체의 경우 비슷하다는 응답은 적었지만, 절반이 넘는 기업(60%)이 중국과의 기술력 축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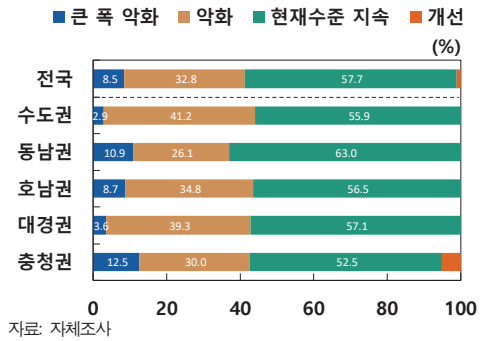
그림 29. 국내업체와 중국 수출기업의 기술 경쟁력 격차



자료: 자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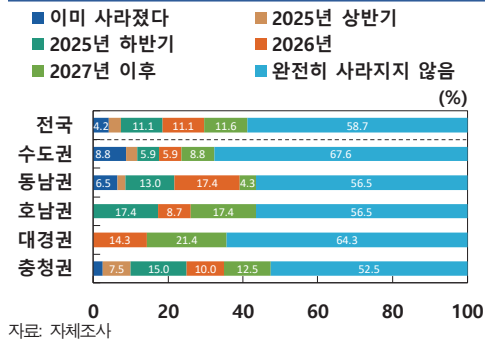
기업들은 향후에도 중국의 과잉생산 및 저가 수출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것이며, 그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2025년에 부정적 영향이 현재 수준에서 지속(57.7%)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도 40%에 달하였다.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거의 없었다. 또한 절반이 넘는 업체가 중국의 과잉생산 및 저가 수출의 부정적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림 30. 2024년 대비 2025년 중 중국의 과잉생산 및 저가 수출의 영향 변화 예상



자료: 자체조사

그림 31. 중국의 과잉생산 및 저가 수출의 영향 소멸 예상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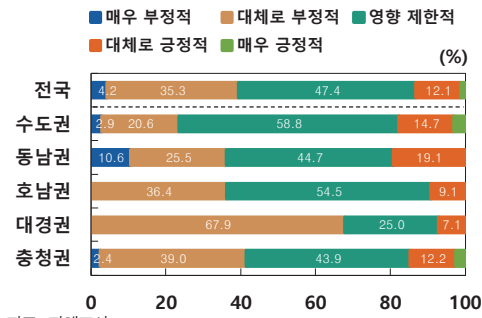
자료: 자체조사

나.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다음으로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39.5%의 기업이 미국 관세정책이 수출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권역별로는 대경권에서 부정적 영향을 응답한 비율이 67.9%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철강, 이차전지 업종의 우려가 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도권은 부정 응답비율이 23.5%에 불과하였다.

그림 32. 권역별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 전망



자료: 자체조사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는 당초 예상보다는 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응답(47.4%)이 가장 많았고, 긍정 비율도 12.1%를 차지하였다.

동 기업들이 관세정책의 영향을 제한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미국·중국으로의 수출 금액이 작기 때문(26.1%)도 많았지만, 대중 관세율이 더 높아 중국산 제품 대비 경쟁력이 향상(32.2%)되거나 확고한 제품 경쟁력 및 수요가 존재(17.4%)한다는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중국과 경쟁이 심한 기업들일수록 미국의 차등 관세 부과에 따른 반사 수혜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국 관세정책이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보다 중국의 저가 수출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88%)하였다.²⁷⁾ 또한 이들의 68%는 중국 기업의 수출가격이 국내업체의 70% 이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가격경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⁸⁾

27) 반면 관세정책의 영향이 부정적이거나 제한적이라고 답변한 기업 중 중국과의 경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64.2%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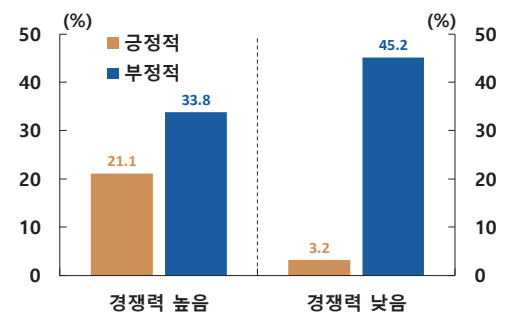
28) 반면 관세정책의 영향이 부정적이거나 제한적이라고 답변한 기업 중 중국 기업의 수출가격이 국내업체의 70% 이하라고 응답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 40.5%였다.

29)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수입산 철강재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한국은 고율의 관세 대신 자발적으로 수출물량을 줄이는 쿼터부과국을 적용(2018년반아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30) 2024.1~11월 중 자동차(부품 포함) 대미수출 흑자(통관기준)는 372.8억 달러로 전세 대미수출 흑자의 약 75.7%를 차지하였다.

관세정책의 영향에 있어서 개별 기업의 경쟁력도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기업은 낮은 기업에 비해 부정 응답비율은 낮고, 긍정 비율은 크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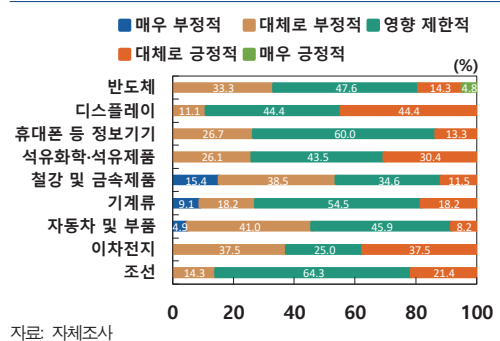
그림 33. 기업의 경쟁력¹⁾별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 전망



주: 1) 각 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업계 평균과 비교하여 응답
자료: 자체조사

업종별로 살펴봐도 우려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부정적 응답이 가장 많은 업종은 철강(53.8%)과 자동차(45.9%)였는데, 철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주요 타겟²⁹⁾이 되었던 점, 자동차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³⁰⁾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4. 업종별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 전망



자료: 자체조사

IV. 종합평가

금년 중 수출 증가세는 지역별로 고르지 않았고 수출의 수도권 집중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권역별 수출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 수도권은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글로벌 수요도 증가하고 해당 산업 내에서의 점유율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비수도권에서 주력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우리 수출은 증가하겠지만 증가폭은 금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환경이 다소 악화되겠지만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수도권 수출 비중이 더욱 확대될 소지가 있다. 수도권 기업들이 2025년 수출 및 중장기적 전망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이었고, 중국과의 경쟁 심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 등 부정적 여건에 대해서도 우려가 덜하였다.

대외여건과 관련하여서는 지역기업들은 중국의 과잉생산 및 저가 수출에 따른 경쟁 심화를 가장 우려하였으며, 2025년에는 그 영향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았다. 중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도 이미 국내업체와 비슷하거나 우려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관세정책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응답하는 기업들이 많았지만, 기업들의 우려는 당초 예상보다는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경쟁이 심한 기업들은 차등 관세 부과에 따른 반사 수혜를 기대하였으며, 제품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도

부정적 여건 변화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향후 중국과의 가격 및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수요도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연구개발 등을 통해 중국과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통상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다.

| | |
|------------------------|---|
| 강인구·강재훈 | “광주전남지역 주력산업 수출 동향 및 대외 경제여건에 따른 영향 점검”, 2023,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
| 김민우 | “최근 대외여건 변화가 인천 수출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전망”, 2023, 한국은행 인천본부 |
| 김상훈·남석모·이승호·최준·유지원·박동훈 | “최근 우리 수출의 특징 및 시사점”, 2023, BOK 이슈노트 제2023-23호 |
| 김수동·최정환 | “트럼프 재선 시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2024, KIET 산업경제이슈, 제175호, 산업연구원 |
| 도원빈·김우중·김진아 | “중국 저가 수출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24, Trade Brief, No. 8,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 이정아·강금윤·오지인 |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2024, KITA 통상 리포트, Vol. 8,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 한국은행 | “경제전망보고서”, 2024년 11월 |
